



http://council.gangwon.kr

강원도의정

월간 강원도의정 제136호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

Gangwon Council Activities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49-5023 everose1@korea.kr 인쇄 :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2016년, 제252회 강원도의회 첫 임시회 개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



2016. 01. 27.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개최식 및 제1차 본회의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2016년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하여 올해 도의회가 개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만큼 그동안 이룩한 의정 성과와 성숙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축적된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과 함께 현안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개회를 통해 금년도 의정

목표 및 의정방향을 제시하고 상임위원 안건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강원도지사 제출안건 10건, 강원도 교육감 제출안건 6건, 의장 제안 및 의원발의안건 12건 등 총 28건으로 이중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이다.

또한, 강원도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으로 도청 24개 실·국·원과 도교육청의 2016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방안과 민생관련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외국어교육원, 속초교육문화관, 양양교육지원센터를 현지시찰하였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를 비롯한 수많은 SOC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과 현장, 개발과 공조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였다.

제 136호 지면안내

- 개회사, 신년연설 2·3면
- 5분 자유발언 4·5·6면
- 주요안건 처리현황 7·8면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9면
- 사회문화/농림수산위원회 10면
- 경제건설/교육위원회 11면
- 특별위원회 및 기타행사 12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13·14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I 15·16면

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개 | 회 | 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동해안을 비롯한 도 전역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현안과 도민들의 소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좋은 징조라고 생각되며, 새해에는 도민 모두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모두는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사태 등 엄청난 재난재해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한해에 힘을 모아 함께 달려오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난재해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 수렴된 의견들을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미래, 강원도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앞장을 서는 등 지난 한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의회 개원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개원 60년 동안 이룩한 의정 성과와 성숙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축적된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도의 산적한 현안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월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최종점검 단계인 첫 번째 테스트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강원북부권과 남부권을 비롯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SOC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9대 도의회는 역대 어느 도의회에서 보다도 도민을 위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구현을 통해 그 책임과 소명에 충실한 강한의회로 거듭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대안 중심의 의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민을 우선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과 의회 발전을 위한 계발·공조 중심의 의정을 보다 더 활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자(膾炙)되는 사자성어로서 「초심불망(初心不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마음을 다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충실 한다면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쾌속 향진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새해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민생과 관련한 각종 조례를 포함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보고와 논의를 통해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 | 년 | 연 | 설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첫 개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2.6일부터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소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포함해서 세계의 올림픽 메달 후보들이 참가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도는 “올림픽 FESTIVAL”을 개최합니다. 이 축제에는 18개 시군이 각각의 문화 예술 공연을 가지고 참가합니다. 시군의 대표 음식, 대표 상품도 선정되어 전시됩니다.

어렵게 만든 경기장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리는 첫 경기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의도는 올림픽을 국가와 지역 발전의 도약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야 하고 앞장 설 수밖에 없

습니다.

올림픽과 함께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일들 즉 하늘길, 뱃길, 철길, 땅길을 여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 춘천~속초 간 철도 사업을 올해에는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보여주고 계신 의지와 열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척~제진 간 동해선, 동해항 인입선 철도사업을 국가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로 뱃길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크루즈 사업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지난 7일에 관광객 1,800명을 실은 크루즈가 동해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크루즈 5항차, 7천명의 탑승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을 10만 톤급 대형크루즈가 드나드는 관광항으로 확장

하겠습니다.

동해항에 1조 7천억원이 투자되는 확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된 백두산 항로를 다시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양 공항은 2차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상조업 시범공항으로 지정되고 모(母)기지 공항이 되어 다른 공항들과 비교적 대등한 조건을 비로소 갖췄습니다. 올해는 50만 탑승객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50인승 항공기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더 가까이에서 더 싸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항공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강원항공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땅길은 이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국가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길을 열고나면 그 다음 단계는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정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더 효율적이면서도 우리 도민들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관광 자원인 DMZ도 실질적으로 상품화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땅의 두 번째 대상은 산림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과 소득형 산악주택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들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경제 즉 도민들의 소득-살림살이입니다.

올해 수출 전략의 중심은 한중 FTA입니다. 그 첫 성과로 철원 오대쌀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인삼과 해삼, 화장품을 비롯한 강원도 대표 상품들을 선정하고 품질과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서 강원도의 산업을 수출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규모를 더 키우고 수준을 더 높일 것입니다.

북한의 나진항도 상용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을 GTI 박람회를 통해

선점하겠습니다. 동해와 속초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해외 본부와 판매 거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통합수출 플랫폼인 강원무역을 발전시켜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의 흐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축인 관광은 올림픽 때까지 그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500만 명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한국 방문의 해’와 ‘한중 방문의 해’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위한 6대 전략 상품을 선정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HDC 신라 면세점에 강원도 상품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50만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삼척 대명리조트 등 민자 관광시설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립스 코리아의 항체 기술과 플라즈마 발전소, 플라즈마 신소재, 3D 프린팅 기술을 비롯해 꾸준히 투자해온 신기술들을 상용화하는 것을 앞당기겠습니다.

벤처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센터, 뿌리기술지원 센터를 잘 설립해 기업지원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 14%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레고랜드와 차이나드림시티를 비롯해서 이미 유치된 외자 기업들이 잘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올림픽 특구의 외자 유치도 매우 어렵지만 잘 성공시키겠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은 가공형·수출형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농어촌을 기업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업형 농업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기업과 취업자에게 동시에 유효한 정책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춘천에 이어서 원주를 비롯해 효도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귀촌 귀농을 하실 분들,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 집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값싼 주택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도 선진적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사업을 올해는 20개까지 늘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살률 1위의 오명에서 반드시 벗어나겠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국비예산이 6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관련 사업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6조원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도청 소속의 원윤종 선수가 봅슬레이 월드컵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한국 최초는 물론이고 아시아 최초입니다. 언론은 ‘천지개벽, 기적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향하여 우리 곁에서 기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일으켜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앞으로 744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중한 날들입니다. 당장 정선 월드컵 스키대회는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테스트 이벤트대회에 전 세계가 강원도를 주목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도민들의 열정이 세계에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2월 4일에는 강릉에, 2월 6일에는 정선에, 또 2월 18일에는 평창에 우리의 열정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강원도 의회 개원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강원 도민을 위해 더 큰 활약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심 영 섭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강릉시 제선거구

지난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2005년 이후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7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처음 신청한 이후 2013.2월 마침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만, 3여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역시 위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7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라는 절대적인 호재가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비철금속 소재, 부품산업은 분명히 차별화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려던 당초의 취지대로 전략적으로 선개발 후분양 방식의 직접 개발하는 선제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도 함께 동반하듯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제언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이 종 주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올해는 제9대 강원도의회가 의정

활동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한중 FTA,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특히 올해는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장 다음 주면 G-2년 테스트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삼위일체가 되어 테스트이벤트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올림픽 축제,

동계올림픽을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정부 조직이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직위는 좀 더 힘을 내주시고, 올림픽 개최지에서 대한민국 강원도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개최지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조직위는 대한민국 강원도와 IOC 사이의 조정과 중계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IOC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개최지가 올림픽 홍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간에 떠도는 국제겨울운동회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가 앞장서서 조정하고 중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교육현안 전반에 대하여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유 정 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춘천시 비례대표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인구 변동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수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춘천·원주·강릉의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학교 설립이 미루어지면서 강릉

지역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시는 인구수 증가와 전세난, 주택부족 등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계동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 4만 5,000명의 퇴계동과 4만 명에 달하는 석사동, 인구 9만 명 규모의 이 두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는 단 두 곳뿐입니다.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는 단순히 어린 학생들의 불편만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의 교통체증, 교

통비 지출 증가로 가계부담 등, 등하교 시 안전문제와 학업시간 감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과 함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교육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교육청의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연구와 인구변동 및 학생수용 여건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최 명 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영월군 제선거구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문제는 올림픽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낙후된 강원남부권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년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10년 연장되는 그 첫 해에 와 있습니다. 1995년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얻어진 폐특법은 아직도 폐광지역의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통해 거두어들인 세수 등을 가져갈 줄만 알았지 폐광지역의 SOC 확충 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천~삼척 간으로 이어지는 38번 국도 4차선화는 20년이 넘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에 매달려 다른 현안들을 방치하는 사이 지난해 강원남부권

4개 시·군과 충북 북부지역 시·군들이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중 미착수 구간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제라도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영월~신림IC 구간, 88번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의 조기착공을 위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단 조직 보강 등에 대하여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박 현 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평창군 제선거구

현재 우리 도내에는 100억원부터 6,000억원까지 투자계획으로 25

개소의 관광시설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나 그 중 건설 중인 7개 사업을 제외하면 18개 사업은 지정절차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사업 이외에도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 창출사업으로 풍력단지 설치, 태양광 개발, 소수력 발전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대학 유치, 공장 설립 등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특성에 맞는 수많은 민간사업들이 구상

되어서 어렵게, 정말 힘들게 추진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들이 까다로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고 큰 민간투자사업, 그중에도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십 건의 인허가와 관련 부서의 협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도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하고 활발한 추진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인허가 지원단에 보강 배치하는 것

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허가 지원단에 배치하는 공무원은 국민교육현장에 나오듯이 인허가 지원에 타고난 소질이 있고 긍정적이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으며 차기 자체 승진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직원으로 선발해야 하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인허가를 사업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야 합니다.

강원도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하여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박 윤 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는

여덟 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16.9%로 전국평균 12.7%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 집권적이고 전국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강원도의 상황에 맞는 눈높이 대책이 마련돼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8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인 전남의 경

우, 다양한 출산 친화정책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축하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산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승인한 공공 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에게 원정출산의 어려움과 분만 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교통오지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목욕탕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지역의 수요에 맞는 노인 복지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상황을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바로 강원도의 핵심 정책 즉, 정책 의제를 저출산·고령화 극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전담부서의 신설과 우리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이며, 하루빨리 해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제252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6. 2. 4.(목)



김 김 분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춘천시 제선거구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문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중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문학관 후보지를 공모해서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총 481억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인데다 한국의 모든 문학자산을 총괄하는 구심점이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주문합니다. 첫째, 문학관 설립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

위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둘째, 유치전에 뛰어들든 도내 시·군과 장차 신청할 시·군은 어디인지, 셋째, 타 시도의 동향은 어떠한지 유치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또한 중앙부처의 공모일정이나 평가방침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두를 발빠르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미시령터널 법인세 재정부담 절감에 대하여

제252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6. 1. 27.(수)



김 성 근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선거구

미시령터널 사업실시 협약을 보

면 불변가 기준으로 법인세 160억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한 경상 가격으로 현실가격입니다.

환산해 보면 1,820억원을 30년간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회사인 미시령터널주식회사의 높은 이자로 전액 대출해 주고 적게는 6%, 많게는 65%까지 연이율로 가져와서 연

120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로 다 회수해 갑니다.

지금 이자 지급액은 법인세 계산을 할 경우 손비처리 항목으로 인정되어서 본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인해서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 30년간 법인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인하를 위해서 재정지원 부담금을 줄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요금산정을 위한

현금 흐름표'에서 법인세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만일 사후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만 법인세 금액을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를 사전에 없앨 경우에는 운영비가 686억원으로 줄어들고 요금 또한 2,900원으로 약 12.5%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제252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6. 2. 4.(목)



구 자 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4선거구

강원도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문

제점 해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해답을 강원혁신도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채용의 35%가 지역 출신 인재로 충원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도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신강원경제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내 산업구조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업체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원혁신도시를 마중물로 삼는 창조적인 경제지도의 완성과 신성장동력에 걸맞은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칭 강원도일자리창출지원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와 시·군 산하의 일자리기관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으며,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도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활로를 찾

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강원혁신도시의 기관별 특성에 맞게 도내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명의 공직자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일자리창출지원센터로는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경제, 청년실업 문제해소를 위해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주여고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제252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6. 2. 4.(목)



원 강 수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원주시 제5선거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난 지방

선거 당시 원주에 오셔서 원주시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잡혔습니다. 사업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

다. 원주시민들이 사업을 이행해달라고 수없이 재촉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옛 원주여고 부지는 도심 속에 방치된 채 오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 재원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 주인인 강원도교육청, 종축장 부지 주인인 강원도, 너희들끼리 부지를 맞교환을 하든 재원대책을 마련해 보라. 일부에서는 제3자가 남의 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의

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주시장님의 그 심정을 심분 이해합니다.

이제는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추진일정을 꼼꼼히 챙겨주시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주시장님께서 제시하신 부지 맞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시오.

미시령터널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252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6. 2. 4.(목)



김 성 근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선거구

강원발전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

되면 통행량이 83%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행량의 17%밖에 통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MRG를 연평균 25억 지급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약 265억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36년까지 20년 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 5,300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해결의 대안책을 내놓겠습니다. 바로 공익처분이라고 합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서 공익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시협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의 83%가 줄어든다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되고 효율적인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분명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고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귀책사유로 해서 해결하려면 1,910억만 주면 된다는 거죠. 내년인 2017년도 말에 하게 되면 1,950억만 주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당장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법률과 회계,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누리과정에 관한 제언

제252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6. 2. 4.(목)



최 성 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춘천시 제2선거구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더욱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도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하여 2013년 3세·4세까지 확대된 누리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부터 편성을 거부하여 소위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만큼은 본래대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교육만이라도 분쟁이 없는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치인인 지사님의 책무임을 인식하여 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유정선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적십자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강원도 이·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최명서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이·통장 연합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 (이·통장 연합회의 활동 지원 근거규정 명확화)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원강수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도민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발 의 자 : 최성현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정재웅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

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8.19)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감독 기능과 수급자의 책임 강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조항삭제, 선금 등의 지급기한 명기 및 유사 조항의 통합·정비가 주요내용임.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발 의 자 : 김금분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에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비롯한 노인의 건강과 보호, 사회통합과 소통, 사회참여, 경제적 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체계 정비, 시설 위탁운영 규정 수정·보완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 조례 제명 불일치 정비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존 조례의 통합운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존속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제정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11.29. 시행) 개정·시행에 따라 강원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 발 의 자 : 구자열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환골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등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농림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당초 별도로 운영하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과 인증마크 사용 제도를 일원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출자 기관 설치 및 지원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지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출자기관 설립, 출자기관의 사업범위 설정,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 등에 대한 지원가능 규정 명시, 출자기관에 소속공무원 파견 등이 주요 내용임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시행(2014. 5. 23)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반영과 그 밖의 불명확한 용어등을 정리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오세봉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 이행사항을 조례로 규정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분장 사무 조정, 조직개편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설치 목적 및 업무 조정, 강원진로교육원 신설 및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른 부서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교육장에게 감사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교육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인사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건,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건, 원주교육지원청 1개기관 청사 증축 2건, (구)내촌초 대봉분교장 외 4개교 매각 5건, 총 9건에 관한 변경건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고등학교 이하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을 위한 학교 방문시 연3일의 범위에서 휴가처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삭제하고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휴가를 5일에서 3일로 수정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취득 2건, 교환 1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건임

강원도개발공사 (주)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개발공사 (주)알펜시아 면세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

으려는 것임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2009년 운영 중단된 소양고등학교 실습농장(춘천시 신동 및 신북읍 일대)을 활용(임대)하여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동참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낙산·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장석삼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승인 촉구를 건의

강원도의회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 의 자 : 김성근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미래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관철하고, 철도노선은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 용역결과와 같이 '용산~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발 의 자 : 강원도의회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5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16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발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했고,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 제명과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이어 2016년도 도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2016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의결, 1건을 수정의결 처리했다.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과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은 상정된 안건의 목적과 취지가 안건의 내용과 상이하여 부결하였고, 그 외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강원도 개발공사 (주)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은 면세점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의결, 2건을 수정의결 처리했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사회문화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중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도지사는 해당사업에 수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사업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했다.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의결, 1건을 수정의결 했다.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중 2016년 농정국, 농업기술원, 녹색국, 강원도립대학, 환동해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제7조의2 제2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제2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결 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상훈)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동계올림픽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경제진흥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적 동계올림픽 준비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전략을 주문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의결 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상훈)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다.

강 / 원 / 도 / 의 / 회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관, 행정국, 정책기획관, 교육국의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후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받았으며,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고,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 외국어교육원을 존속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을 위한 학교 방문시 연3일의 범위에서 휴가처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삭제하고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

휴가를 5일에서 3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강원외국어교육원, 속초교육문화관, 양양교육지원센터를 현지시찰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의결, 3건을 수정의결 했다.



특별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2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사결정과 2016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받고, 3월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현지시찰과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타 행사

강 / 원 / 도 / 의 / 회

2016년도 의원총회 개최

● 강원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과 의원 전원, 도기획조정실장 등 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 산하기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16. 1. 2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16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및 2015년도 의회운영 결산보고 등을 위한 2016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강원도 최대 숙원인 서울~춘천 동서고속철 사업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동서고속철 건설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정치 오지인 강원도를 철저히 소외, 도민 마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깊이 자리잡았다"며 "30여년간 선거때마다 천명한 사업이 헛공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객관적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기 착공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 종합토론에서는 의정발전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며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통보 및 원내 교섭단체 협의강화 등에 대한 의견들도 건의되었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2018 동계올림픽 성공추진관련, 드림프로그램 스키 아카데미 및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경기장을 현지시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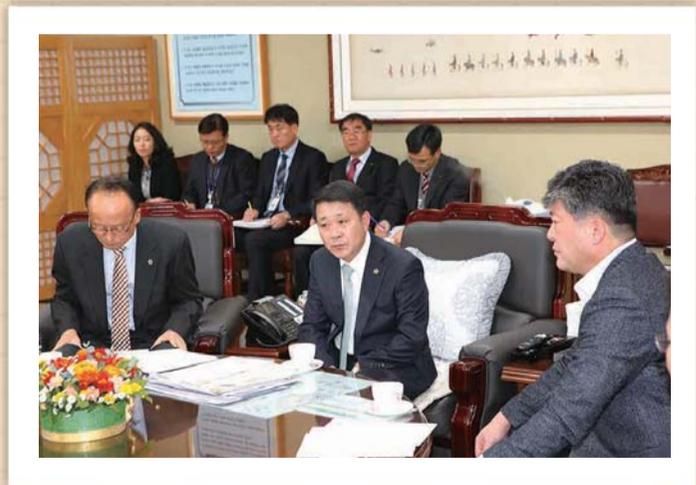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I

- 2016. 01. 27 강원도 미래 첨단기술 설명회



- 2016. 01. 27 제252회 의정대표협의회



- 2016. 01. 28 설명절 전통시장 민생체험



- 2016. 02. 03 동서고속화철도 예타관련 긴급 대책회의



- 2016. 02. 03 춘천경찰서 의경 위문



- 2016. 02. 25 인구보건협회 맘맘맘강원 의회견학



- 2016. 02. 25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 연구회 현장답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Ⅱ

- 2016. 02. 11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이행 촉구 1인 시위



- 2016. 02. 19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이행 촉구 1인 시위



- 2016. 02. 24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 2016. 03. 01 3.1절 기념 타종식



- 2016. 02. 24 한중FTA 대응을위한 유관기관 회의 및 강원도 전략



- 2016. 03. 01 3.1절 기념식

